

제목 : 東아시아 古代學會 제8대 회장 취임사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회장 인천대학교 교수 이상준입니다.

행운과 만복을 가득 실은 청마가 갑오년 새해의 아침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아가, 가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회에 대한 국가정책이 아직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혼란기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어서 많은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학회 발전과 회원 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의 권익과 학회발전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과 열기를 받아서, 회원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장을 펼치고, 그 옥고를 받아서 권위 있는 학술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소인이 회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고전 고대 각 분야에서 덕망과 권위 있는 교수님과 학자님들을 부회장님으로 모시고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각분야간의 독자적인 연구발표는 물론, 융합연구도 가능한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사·철이 분리되어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 학회야말로 그 융합연구를 위한 최상의 학회라고 판단합니다.

국내외에 계시는 외국 학자님과 재외 한국인 학자님들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특별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와 연구 성과가 우리와 다름을 확인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한국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험난하지만, 학술대회(기획주제 연 2회 이상, 국제학술대회 연 1회 이상)와 학술지 발행을 연 4회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고전과 고대에 대한 미래지향적 재해석>라고 하는 큰 주제를 2년에 걸쳐서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의 고대와 고전의 재발견>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

아시아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 등 주요과제를 포럼을 통하여 구명하여, 현대에 있어서의 고전의 유용성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문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학술대회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교류>에 대한 발표와 논쟁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동계 학술대회는 김풍기 교수님(강원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강원대학교에서 2월 20-21일 양일에 걸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칭) 동아시아 문화와 지역원형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및 문화유적답사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춘계 학술대회는 남이숙 교수님(군산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군산대학교에서 5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계 국제학술대회는 <(가칭)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원형과 이동>이라는 기획 주제로 2014년 8월 2-7일에 일본 동지사대학에서 한중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카야마 켄이치로 교수님(천리대)의 치밀한 전략과 활약으로 천리대학에서 소장 중인 우리의 국보인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김풍기 교수님 등의 해설과 토론을 곁들여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石上神宮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제왕이 일본천황에게 하사한 <칠지도>를 직접 대면하면서, 윤명철 교수님(동국대), 이도학교수님(한국전통문화대), 정효운 교수님(동의대) 등이 펼치는 토론의 장을 통하여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날처럼 서로 대치하는 이웃이 아니라, 고대부터 문화를 공유하는 지근한 문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한일관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동지사대학 교정에 있는 정지용 문학비와 이육사 시비를 고운기 교수님(한양대)의 해설을 곁들여,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 보겠습니다.

2015년 하계국제학술대회는 현재 중국 상하이와 사천에 계신 우리 학회 임원들과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래를 만들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학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동아시아 학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우리 회원 분들의 논문이 SIC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금 학회 부회장님이신 아시아인스티튜트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님 등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장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경희대 이화형 교수님과 편집위원들, 부회장님들과 이사님들, 2년 동안 늘 우리를 지켜보실 감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동아시아고대학회 창립 후, 학회발전에 기여해 주신 고 황패강 전 회장님, 박용식 명예회장님, 강재철·윤영수·서영대·송재용 전 회장님들을 비롯한 역대 임원진, 그리고 그 초석이 되어 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회원 분들께 최상의 봉사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학회에 무한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

東아시아古代學會 이 상 준 올림

